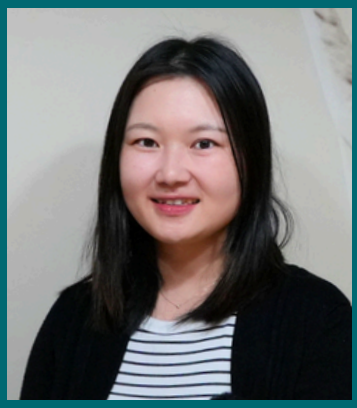
New Zealand Tertiary College



학생 프로필

이름
한나 허

국적
중국

프로그램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CE) (레벨 7)

학업 연도
2024

캠퍼스
NZTC 온라인

HANNAH'S STORY

NZTC 학생 성공 스토리

배경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슈한이고 영어 이름은 한나예요. 남편과 다섯 살 아들과 함께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찾아 뉴질랜드에 오게 됐어요. 뉴질랜드는 아이들에게 천국 같은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대로였고, 지금은 이곳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NZTC를 선택한 이유

NZTC는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학교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밤에 더 집중이 잘 되는 타입이라, 가족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꼭 필요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주로 밤늦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유연한 구조 덕분에 학업과 육아를 무리 없이 병행할 수 있었어요.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CE) 과정

저는 2024년에 NZTC의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CE) 과정을 마쳤어요. 1년 동안 꽤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유아 교사로서 자신감을 갖는 데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실습 경험

실습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였어요. 실습 센터는 제가 실제로도 일하고 있는 곳이었고, 주당 약 16시간씩 근무했어요. 졸업 후에도 센터 매니저가 제 업무에 만족해 하셔서 풀타임 정규직으로 채용해주셨고, **지금은 같은 센터에서 정규 등록 교사(Registered Teacher)로 일하고 있어요!**

나만의 학습 속도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밤에 더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NZTC의 온라인 학습 방식이 저한테 딱 맞았어요. 제 생활 리듬에 맞춰 유연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두 살 이하 아이들 교육

현재 저는 노스쇼어에 있는 유아교육 센터에서 2세 미만 아기들을 돌보는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팀에는 다섯 명의 선생님이 있고, 우리는 기저귀 갈기부터 수면 루틴, 동요 부르기까지 모든 걸 함께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이 음악과 함께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균형 잡힌 학습 환경

뉴질랜드의 유아교육이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성장과 학습을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곳 아이들은 스스로 표현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요. 제가 중국에서 봤던 다소 학문 중심적인 교육 방식과는 많이 달랐고, 제 아이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도전과 성장

가장 힘들었던 건 시간 관리였어요. 어떤 주에는 실습 때문에 주 5일 센터에 나가면서 밤늦게까지 과제도 해야 했거든요. 쉽진 않았지만, 덕분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비자와 영주권

저는 처음엔 학생비자로 시작해서 졸업 후에는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로 전환했어요. 예상보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명확해서 놀랐어요. 지금은 워크비자 상태고, 올해 말쯤엔 영주권도 신청할 계획이에요.

조언과 격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은,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건 분명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값진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힘들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 어딘가에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저는 이 일이 정말 즐거워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이 뉴질랜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은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NZTC에서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실습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근무할 '홈 센터'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